

지역 소식통

고창군, 2025년 후계농업 경영인 등 지원 대상자 모집

고창군이 내년 2월 5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신규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창업농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2022년1월1일 이후 경영주 등록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 신청가능하다.

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지원되며, 농가의 경영비와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동안 후계농 육성자금, 교육, 컨설팅 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염산 누출사고 현장방문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는 최근 발생한 염산 누출사고 발생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북면 일대를 방문했다.

이번 사고는 제3산업단지내 위치한 한 공장에서 염산을 보관하던 탱크 밸브의 이상으로 염산 10톤가량 누출되었으며, 그 중 4톤이 인근의 정화천으로 흘러갔으나 초기의 빠른 대처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을 방문한 박일 의장과 오명제 위원장을 포함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재난안전 관련 부서로부터 사고 발생사항을 보고 받고 추가 누출 방지 및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 등을 확인·점검했다.

박일 의장은 "2차 오염 방지 작업을 꼼꼼히 실시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생 안정 종합대책 즉시 추진”

권익형 부안군수, 연석회의서 전북자치도 특별법 시행령 제정 후속 조치 주문

권익형 부안군수가 국내외 여건으로 민생이 어려운 만큼 민생 안정 종합대책 즉시 추진을 주문했다.

권익형 군수는 23일 열린 12월 중 연석회의에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당면 업무를 마지막까지 철저히 추진해 달라”며 “국내외 여건으로 민생이 어려운 만큼 민생 안정 종합대책 사업을 즉시 추진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이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미흡했던 사업과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권익형 군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며 “관련 부서



에서는 시행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소관 분야별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분야별 특례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형 군수는 “각 부서는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자연 재난과 화재위험에 대비해 소관 취약 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점검을 해 달라”며 “특히 습설로 인한 지붕 붕괴 우려와 화재위험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은 관리 사각지대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 고액 기부자 예우, 그 뜻을 새기다’

부안군, 명예의 전당 제막식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형)은 자랑스러운 부안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농인재육성장학금 · 고향사랑기부금 고액기부자의 후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부안군 명예의 전당을 부안군청 1층 로비에 설치하고 23일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 행사에는 권익형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2023년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군농인재육성장학금 1억원 이상 기부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명예의 전당은 총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등재 분야는 역대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군농인재육성장학금 1억원 이상 기부자,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 이상 기부자 등이다.

명예의 전당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 발전에 기여한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183명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수상연도 · 이름 · 수상분야가 기재된 동판을 통해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또 향후 수상자를 위한 자리를 일부 남겨둬 지속적으로 명예의 전당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뜻깊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군농인재육성장학금 기부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됐다.

1억원 이상 장학금 기부자 8명의 이름이 등판에 새겨져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나눔의 정신을 이어갈 기부자들을 발굴해 공간을 계속 채워나갈 예정이다.

특히 명예의 전당 내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동판에 자세히 기재되지 못한 수상자 및 기부자들의 공적 내용을 개별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그들의 헌신과 기여를 군민들과 더욱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권익형 군수는 “부안군 명예의 전당은 부안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소중한 발자취를 기록하고 그 뜻을 기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명예의 전당이 부안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민대상은 1979년 군민의 장으로 최초 시행돼 으뜸군민대상을 거쳐 현재 부안군민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18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 발전에 기여한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183명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수상연도 · 이름 · 수상분야가 기재된 동판을 통해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또 향후 수상자를 위한 자리를 일부 남겨둬 지속적으로 명예의 전당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뜻깊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군농인재육성장학금 기부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됐다.

1억원 이상 장학금 기부자 8명의 이름이 등판에 새겨져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나눔의 정신을 이어갈 기부자들을 발굴해 공간을 계속 채워나갈 예정이다.

특히 명예의 전당 내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동판에 자세히 기재되지 못한 수상자 및 기부자들의 공적 내용을 개별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그들의 헌신과 기여를 군민들과 더욱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권익형 군수는 “부안군 명예의 전당은 부안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소중한 발자취를 기록하고 그 뜻을 기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명예의 전당이 부안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민대상은 1979년 군민의 장으로 최초 시행돼 으뜸군민대상을 거쳐 현재 부안군민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18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분야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2024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기술보급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농업 혁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회에서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식량작물, 소목기술, 작물보호 등 기술보급분야에서 뛰어난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시 농업기술센터는 벼 품종다변화를 위한 지역특화품종 육성, 스마



트농업기술 확대보급, 기후변화 대응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 농산물 안전분석 지원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영농

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치유농업 거점도시로의 육성을 목표로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특화작목 지원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등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시 농업기술센터는 우수기관 상사액이 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과 농촌진흥공무원 조직화습 역량 강화 사업에 활용할 계 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의무화

정읍시, 공무원 징계절차서 소명 · 소송 등... 퇴직자도 보호

정읍시가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위한 보호막을 한층 강화했다. 공무원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제도 개정안이 그 핵심이다.

시는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 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의무화와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징계의결 요구, 고

소 · 고발, 민사상 책임 등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한 부분이다. 이전에는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직 중 수행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퇴직 후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직 당시 시작된 소송이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나, 몇 년이 지난 뒤 수사를 받는 사례까지 고려한 조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고창군이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군민 체감 적극 행정 성과를 창출한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5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을 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이기영(최우수, 신원력경정제정책관) △송병경(우수, 농업정책) △김은중(우수, 사회복지) △이상석(장려, 안전총괄) △고지현(장려, 세계유산) 등 총 5명이 최종 선발됐다.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된 이기영 주무관은 고창종합테마파크 리조트 2만여평 부지의 성토 공사시 공사업체 발주가 아닌 순순토 직접 매입방식을 도입했다.

현장 계근대 설치에 따른 정확한 반입물량을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는 등 공사발주시 소요되는 예산의 50% 절감에 함께 흉년가 특혜사비와 반입물량에 대한 사전 분쟁 예방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송병경 팀장은 농작물 손해보험 배상에서 제외된 단호박 폭염피해와 관련, 고창군 주도의 농업재해 증명으로 이례적 단일품목, 단일지역 농업재해를 인정받아 농가 피해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 공무원에 선정되었다.

김은중 주무관은 고창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자료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211명을 발굴 객관적인 자료가 증명된 103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서 훈을 신청, ‘의향 고창’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장려에는 폭염 집중 대응기간 양심별장교를 운영해 군민 온열질환 및 폭염피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한 이상석 팀장(안전총괄과)과 제1회 고창모양성제 ‘옛것에 MZ를 얹다 슬로건’ 개발, 행사 컬러마케팅 도입 등으로 20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추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고하나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샘고을시장 기초질서 확립 민관 합동 캠페인

정읍시가 샘고을시장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과, 시가동주민센터 부서장과 샘고을시장 상인회장 등 13명이 참여해 상인들과 함께 질서와 안전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시장 점포의 자발적인 고객선 준수와 주정차 공간에 쌓인 적치물 이동을 독려하기 위한 행정지도가 진행됐다. 또한, 동절기 화재 예방 및 화재공제 가입 홍보 캠페인도 병행



하며 안전 의식을 고취시켰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민관 합동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행 불편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해 전통시장 질서 확립에 더욱 힘을 쏟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